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분석

An Analysis on Identities of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Jeju Island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이 안 희

2012년 8월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분석

An Analysis on Identities of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Jeju Island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이 안 희

2012년 5월

이 안 회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6월

국 문 초 록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분석

이 안 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지도교수 김 민 호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은 어떤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 정체성 형성은 어떤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밝히고, 국제결혼이주민 자녀들이 정체성 정립과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은 이주민자녀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

둘째,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다양한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고,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보이는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주의국인쉼터에 다니는 초등학생 6명을 관찰·

면담하였다. 같은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라 할지라도 이들의 정체성은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전제로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을 필리핀과 한국 두 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또한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 요인을 사회 문화, 사회조직,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기초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은 네 가지 유형의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균형 지향형은 필리핀과 한국 문화를 오가며 두 문화의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주류문화 지향형은 필리핀과 한국 문화 사이에서 보다 더 한국인이 되려는 지향이 강했다. 또한 하위문화 우세형은 필리핀 문화나 한국의 대중문화 등 소위 하위 문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고, 일탈 위험형은 사회적 규범의 벽을 넘어 일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다.

둘째,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다양한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균형 지향형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은 그 부모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었고, 자녀에 대한 관심 또한 많으나, 모국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소극적이었다. 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긍정적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또래 관계에서 왕따 경험이 없었다. 그리고 필리핀 공동체에 자주 참여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류문화 지향형은 균형 지향형처럼 이주민 부모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었고, 자녀에 대한 관심 또한 많으나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소극적이었다. 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긍정적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또래 관계에서 왕따 경험이 없었다. 균형 지향형과 달리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가 많고, '한국인'의 외모와 차이가 적어 피부색으로 인한 갈등은 보이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어머니가 통역사 일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하위문화 우세형은 균형 지향형, 주류문화 우세형과 달리 이주민 부모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나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다소 적극적이었다. 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래 관계에서 왕따 경험이 있었다. 필리핀 공동체에 자주 참여하고 있으며, 매스미디어에서 이주민에 대한 소개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탈 위험형은 하위문화 우세형과 마찬가지로 이주민 부모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나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다소 적극적이었다. 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래 관계에서 왕따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하위문화 우세형과 달리 필리핀 공동체에 그다지 자주 참여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매스미디어에서 이주민의 소개를 보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심리적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 모두는 정부의 일방적 이주민 정책으로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불리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에는 이주민 부모의 출신국가, 외모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차별적 사회문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 한국인 부모 및 친척과의 교류, 학교의 다문화교육 정책, 이주민 공동체 참여, 매스미디어 등의 사회조직적 요인, 그리고 이주민 자녀들의 부모, 교사 및 또래 등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 등 미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주제어 :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 낙인, 정체성

차 례

국문 초록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 문제 4
-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 1. 정체성의 개념과 유형 5
 - 가. 정체성의 개념 5
 - 나. 정체성의 유형 9
- 2. 결혼이주민 자녀의 특수성 12
 - 가. 부모의 국제결혼이주 12
 - 나. 소수자로서의 결혼이주민 자녀 18
- 3.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 20
 - 가. 선행연구의 개관 20
 - 나.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요인 26

III. 연구 방법

- 1. 분석의 틀 29
- 2. 연구 참여자 32
- 3. 자료 수집 및 분석 34

IV. 연구 결과

- 1.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35
 - 가. 균형 지향형 36
 - 나. 주류문화 지향형 37

다. 하위문화 우세형	38
라. 일탈 위험형	40
2.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요인	42
가.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 작용	42
1) 이주민 부모와의 관계	42
2) 담임교사와의 관계	44
3) 또래들과의 관계	48
나. 사회조직	49
1) 가정생활	49
2) 학교의 다문화 교육정책	51
3) 이주민공동체 참여	52
4) 매스미디어	53
다. 사회문화	55
1) ‘한국인’ 외모에 대한 인식	55
2)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태도	56
3) 출신 국가에 대한 평가	56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59
2. 결론	63
참고 문헌	65
ABSTRACT	70

표 차 례

〈표 II-1〉 다문화가정과 자녀의 유형	13
〈표 II-2〉 한국의 결혼이민 현황	14
〈표 II-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14
〈표 II-4〉 초·중·고 재학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 현황	15
〈표 II-5〉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말하는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유	16
〈표 II-6〉 제주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18
〈표 II-7〉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18
〈표 III-1〉 두 사회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차이에 따른 정체성 유형	30
〈표 III-2〉 연구 참여자	33
〈표 IV-1〉 이주민 부모와의 관계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43
〈표 IV-2〉 교사의 기대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47
〈표 IV-3〉 또래 관계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49
〈표 IV-4〉 사회조직이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54
〈표 IV-5〉 사회문화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57

그림 차 례

[그림 II-1] 정체성의 여러 차원	7
[그림 III-1] 결혼이주민 자녀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요인	3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세계화’의 물결은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키고, 동시에 곳곳에 ‘경쟁’을 조장하여 국가 간의 불균등한 발전과 빈부 격차를 증가시키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자본의 흐름에 따라 국경을 넘어선 이주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는 개개인들이 노동이주, 혼인이주, 전문적이주, 가족이주 등 다양한 동기를 갖고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은 정책적으로 인력을 해외로 송출하여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지역 이주민 특히 아시아지역 결혼이주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1)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결혼이주민은 211,458명으로 2010년 181,671명에 비해 16.4% 증가하였고, 성별로는 여성이 188,580명(89.2%)이다. 이들 이주민 여성의 국적은 중국이 56.6%, 베트남이 22%, 필리핀이 6.3%, 일본이 5.2%, 캄보디아가 2.3% 순이다. 제주도인 경우에도 2011년 외국인주민이 8,499명(제주전체 인구 1.5%)이고 그중 2,007명(제주외국인주민의 23.6%)이 결혼이주민이며, 1,580명(제주 외국인 주민의 18.6%)이 다문화가정자녀이다. 결혼이주민 중에는 중국 출신이 38.4% 베트남 출신이 27%이고, 필리핀 출신이 14%이다.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연령별 현황은 0~4세가 935명으로 외국인 자녀 중 59.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5~9세는 329명으로 20.9%, 10~14세는 216명으로 13.7%, 15~18세는 100명으로 6.3% 순이었다. 결혼이주민 자녀의 분포로 보아 앞으로 학교에서 이들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결혼이주민 자녀들을 타인으로만 보고 한국 사람으로 수용하는데 인색하다. 국내거주 외국인 통계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주민중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이민자’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혼인귀화자’로 분류된다. 결혼이주

민 자녀들은 '외국인 주민' 중 '외국계 주민 자녀'로 분류되고 외국인 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부모 세 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매스컴에서도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접근을 할 뿐이지 '우리'안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그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한국인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상호 모순적 경향을 띤다. 결국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들을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되 주류사회 안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이들이 '영원한 외국인'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주민 혹은 이주민의 자녀가 '나는 외국에서 왔지만 한국인이다.' '나의 부모는 외국에서 왔지만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보다는 '나의 부모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일반 한국인과는 다르다.' 라는 생각을 강요하는 셈이다.

또한 학교에서도 결혼이주민 자녀를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분류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너의 부모는 외국에서 왔지만 너는 한국인이다.' 라기 보다는 '너의 부모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가정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 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지위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부담이 많다. 아울러 두 나라의 시민 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설동훈, 2005) 한국 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어머니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접촉하고 습득하는데 편차가 있지만 최소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의식을 가지고 성장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양육 및 교육기관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국인이기에 앞서 다문화가정의 자녀 혹은 다문화가정 학생이라고 불리고, 남들과 구별되는 시선을 느끼며 자라게 된다. 특히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한국인'과 '다문화가정 자녀'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돈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재일한국인 청소년, 미국 내 이주민 청소년들이 정체성의 혼돈에 따라 가족 간의 갈등, 학업부진 등의 학교 부적응, 나아가 사회적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다(이승훈, 2006; 김성주 외, 2011).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일반가족 자녀에 비하여 그들이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대우받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배척당하는 경험을 통

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 학업문제, 교우관계에 문제를 갖고, 낮은 자아개념과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이고 있다(김재우, 2006; 이창호, 2008; 남윤주, 2009). 이러한 결혼이주민자녀들의 정체성 혼돈을 방치한다면 이 아이들의 인격적 성장은 물론이고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도 부정적 결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결혼이주민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접근하여 결혼이주민 자녀들에 대하여 선입관을 초래할 위험의 여지가 있다. 국제결혼자녀라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조건의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 적응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의 다양한 사회, 학교 및 가정생활 속에서 어떠한 문화나 가치는 선택하여 체화하고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문화나 가치는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거나, 부모가 외국인이라고 외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머니의 출신국가가 같은 결혼이주민 자녀라 하더라도 이들의 두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같지만은 않다. 자신이 처한 사회적인 맥락과 상호작용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의 다양성에 주목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은 어떤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 정체성 형성은 어떤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 밝히고, 국제결혼이주민 자녀들이 정체성 정립과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은 이주민 자녀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

둘째,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다양한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 출신 아버지와 필리핀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이다. 이들 어머니의 종교는 천주교이고 또한 제주의국인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제주지역 모든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체성의 개념과 유형

가. 정체성의 개념

정체성(正體性)의 사전적인 의미는 “의미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存在)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性質) 또는 그러한 성질(性質)을 가진 독립적(獨立的) 존재(存在)”이며, 궁극적으로 ‘그다움의 특징 및 의식’을 일컫는다. 속성을 가진 독립적 존재가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identity)의 어원은 라틴어의 *identitas*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것의 자기 자신’ 과 ‘참된 본디의 형체’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정체성이란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이론적 발전과 실제 적용에 큰 공헌을 이룬 학자는 Erikson(1968)이다. 그는 자아정체성(Ego-Identity)이란 “개인의 영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고, 또 이러한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이라 보아 자신의 통합성과 영속성에 대한 주관적인 의식을 강조하였다. 즉 자아 정체감이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언제나 동일적이고 연속적인 주체로 존재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체제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통합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Erikson의 정의에 따른 자아 정체감의 핵심 요소는 안정성(Stability), 연속성(Persistency), 통합성(Integration)이다.

Erikson은 자아정체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자아정체감을 ‘객관적 정체감’과 ‘주관적 정체감’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객관적 정체감은 심리사회적 정체감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귀속의식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아동은 또래집단에 소속되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의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객관적 정체감’이 발달되게 된다. 즉 객관적 정체감은 자신이 속한 학교, 지역, 국가, 민족에의 귀속감으로 표현될 수 있다. 개인이 가진 내적인 자아상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역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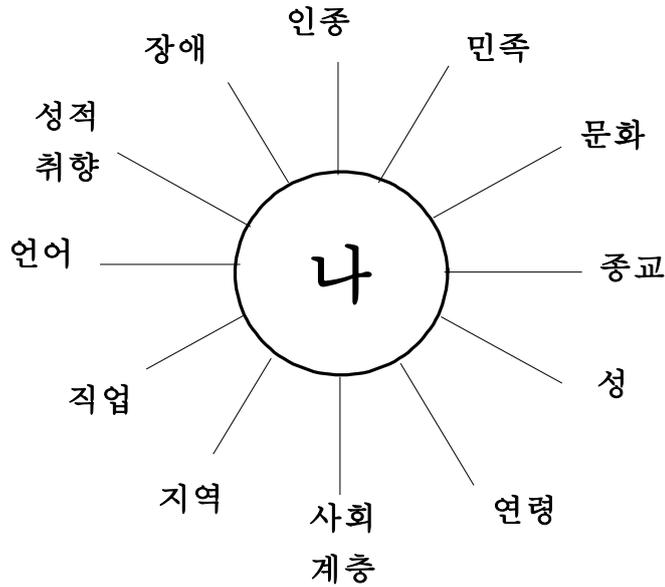
와 잘 통합되는 경우 객관적 정체감이 잘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이차선(2000)은 주관적 정체감에 대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자신이 존재에 대한 동일성과 연속성을 지각하는 힘으로, 주체적인 인식과 행동으로 자신의 자아를 통합해 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관적 정체감은 ‘한 인간으로의 나’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지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송선진, 2007). 이는 집단적 정체 의식 속에서 자신은 타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김성희, 2002).

정체성의 확립은 인간이 평생을 통해 이루어내야 하는 과업인 것이다. 정체성이란 객체로서의 자아와 주체로서의 자아가 동일시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특히 타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상상하게 된 객체로서의 자기 자신(객체로서의 자아)과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주체로서의 자아)을 맞추어가면서 형성하는 것이 정체성인 것이다(박아청, 1995).

Erikson은 사회적 상호작용 특히 가정에서부터 개인이 접촉, 확대되어 가는 사회적 대인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정체성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끊임없는 구성과 재구성의 과정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변해 감을 말해 주고 있다.

인간은 아래 [그림 II-1] 과 같이 인종, 민족, 문화, 종교, 성, 연령, 사회계층(급), 지역, 직업, 언어, 성적 취향, 장애 등의 측면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을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 범주화할 것인지, 또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타인과의 관계를 선정하는 방식과 깊이 관련된다.



[그림 II-1] 정체성의 여러 차원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이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위계적 위치에 있는 이질적인 언어, 이질적인 문화적 유산, 이질적인 외양 및 이질적인 역사 등 다수 이질적 요인에 의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들다움의 특징 및 의식’이라 규정한다(부향숙·김진한, 2010). 이에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민족, 혼혈의 정체성을 이해하여야한다.

문화정체성은 인간이 어떤 특정 문화에 친근감을 느끼고 특정 삶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다(Choong Rai Nho, 2000을 신혜정, 2007에서 재인용). 성장과 발달 그리고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문화는 개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태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접하게 되는 문화정체성만으로 형성되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이를 포괄하기 위해 혈연·지연을 공동으로 하는 자연 공동체인 동시에 그것에서 파생되는 문화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이기도한 민족의 개념을 두고 이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족정체성이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친근성과 자긍심을 말한다. 민족 정체성은 개인이 민족적 상징과 자신들을 스스로 동일시하고 동시에 이를 타인으로부터 인

정받을 때와 '개인이나 집단의 그것들과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민족 집단에 의 소속감은 타인과 구별, 대비를 통해 형성되나, 민족 정체성의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부분으로 어느 민족에 속해 있다는 소속의식이다(고지영, 2003).

민족 정체성이라 말할 때는 동질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민족적인 특성 - 개성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민족적 차원에서 자기존재를 누구로 인식하는가(어떤 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가) - 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전자는 혈통이나 문화 같은 객관적 지표들의 차이에서 본 것이며, 후자는 개개인들의 소속의식으로 본 것이다. 이 소속의식으로의 민족 정체성은 민족적 공동운명의식이나 동포애-애국심 같은 본격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사상의 정서적 토대가 된다 할 수 있다. 민족적 결속과 통합의 동력으로의 민족 정체성은 전자보다는 그 후자적 의미로의 민족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이지명, 2000) 할 수 있다.

민족 정체성은 개인적으로는 특정한 '민족'의 일원이라는 심리적 귀속성의 근간이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문화적 동일성을 구성하는 바탕이다. 그것은 성, 계급, 지역, 종교와 같은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적 기반을 갖고 있다(Anthony, 1991를 장미정, 2002에서 재인용).

Rockquemore와 Laszloffy에 따르면 인종 범주와 혼혈 정체성이 사회적 구성물이며, 인종을 둘러싼 사회관계는 긴장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모든 혼혈(Multiracial)아동은 자신의 인종 정체성에 대해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에 대한 주변의 승인이나 거절 과정을 거쳐 자신의 중간적(in-between)지위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한다(Rockquemore and Laszloffy, 2005:16을 김민정, 2008에서 재인용). 이 때 혼혈 아동의 정체성 발달 과정은 부모의 두 인종 정체성을 양끝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에 놓이는 것으로 파악되며, '혼혈' 정체성은 가족, 친척, 또래집단, 친구, 이웃, 학교 관계에서 타인으로 인정받거나 거절당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선택하여 형성되고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혼혈 정체성을 또한 기존 인종 범주를 '혼합'(blended) 하는 방식 뿐 아니라 '초월'(transcendent) 하는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김민정, 2008).

또한 혼혈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에서 중요한 사회적 승인 및 거절 과정은 환경적 요인과 생물학적 특징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

에는 부모, 확대가족, 학교, 친구, 또래집단, 이웃 등이 관련되며, 생물학적 특징으로는 외모(피부색, 머리카락, 눈모양 등)와 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Rockquemore and Laszloffy, 2005:132를 김민정, 2008에서 재인용).

그런데, 한국의 현실 속에서 인종정체성이나 문화정체성은 민족 또는 국민이라는 범주를 매개로 호환적으로 인식된다(김민정, 2008). 국제결혼이주민 자녀를 혼혈이라고 부르다가 2006년 이후 다문화가정 자녀라 부른다 할지라도 인종적 차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표현 속에는 '혼혈아'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고, 다양하게 구성된 '한국인'의 일부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른 누군가'로 분류한다. 이는 결혼이주민 자녀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혼혈이라는 이유로 혹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국인이기에 앞서 '혼혈아' 혹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부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체성은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구성되고 끊임없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므로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면 사회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및 정체성의 가변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은 한 사회 안에서 그 사회의 주류집단이 국제결혼이주민 자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와 그에 대해 결혼이주민 자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 정체성의 유형

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은 두 문화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왔다. 한쪽의 연구는 두 문화를 연속선상에서 놓고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관심을 둔 반면, 다른 한쪽의 연구는 두 문화에 대한 이주민과 이주민 자녀들의 태도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유형화한 연구들이 있다.

이주민 2세대의 정체성의 경우는 출신국과 이주국이 대등한 위치가 아닌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구분을 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결혼가정의 2세대인 경우 부모의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할 뿐 한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들 중에서도 출신국가, 외모, 사회경제적 지

위 등의 다양한 특징을 반영한 정체성의 다양성을 논의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이주민 2세대의 정체성을 유형화한 Suárez-Orozco(2004)에 따르면, 이들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문화 갈등형(Coethnic Identities)으로 주류 사회에 대하여 저항감을 가지고 갈등한다. 모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주류 사회의 경제활동이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류 사회에서 주변화로 도시 빈민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 그리고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들은 학교에서 중도이탈을 하거나, 자신들만의 집단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주류사회에 동조하는 사람을 비방하기도 한다.

둘째, 주류문화 동조형(Ethnic Flight)으로 주류사회에 동조하면서 주류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비난과 차별 속에서 모국의 문화를 부정하며 주류 사회의 문화를 택하게 된다.

셋째, 두 문화 경계형(Transcultural Identities)으로 부모의 전통과 새로운 문화를 능동적으로 섞어 생활하게 된다. 그 정체성은 단순한 두 문화를 포함하는 그 이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역시 예상할 수 있다. 모국의 문화와 주류 문화의 문화적 거리감이 클 때 정체성의 혼란이 더 크다.

다른 한편 한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정체성을 연구한 김민정(2008)은 국제결혼 가족 자녀의 정체성을 '한국인 유형', '경계인 유형', '갈등형'으로 나누었다. 한국인 유형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정체화하는 경우와 자신이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띠는 경우가 구분되었다. 부모(특히 어머니)로부터 혼혈을 강점이라고, 자신이 '혼혈'이기 때문에 특별한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배웠다. 그렇지만 스스로는 한국인으로 정체화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경계인 유형은 부모 양쪽으로 이중적 소속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갈등형은 가족이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 양쪽의 소속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대개 소극적이고 조용하며 내성적인 성격으로 혼자 지내며, 혼돈스런 감정을 가지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는 정체성 형성의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차적 시도이며, 같은 유형에서도 각기 다른 차원의 답변이 제시되며, 성장하면서 또 환경이 변화하면서 유형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한다.

이주민의 정체성을 연구한 Dong, Gundlach, & Philips(2006)에 따르면 이주민의 정체성은 출신국의 문화 가치와 이주국의 문화 가치를 둘 다 높게 동일시하는 이중문화정체성, 이주국의 문화 가치를 높게 그리고 출신국의 문화 가치를 낮게 지니는 경우는 이주국 정체성, 출신국의 문화 가치를 높게 가지고 있지만 이주국의 문화 가치를 낮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출신국의 정체성, 출신국의 문화 가치와 이주국의 문화가치를 모두 낮게 동일시하는 경우는 주변화 정체성 등으로 구별된다(조민경 외, 2010).

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두 문화를 연속선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유형화시킨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로 파생된 두 사회 집단 간에 대한 소속감의 차이를 구분하여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을 유형화하고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균형 지향형으로 주류 문화인 한국사회와 이주민 부모의 문화에 대한 소속감의 차이를 근거로 두 문화에 대한 소속감이 둘 다 강한 경우이다.

둘째, 주류문화 지향형이다. 주류문화에 동조하면서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 이주민 부모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약하고, 주류사회의 문화를 터득하고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하위문화 우세형이다. 주류 사회인 한국사회의 문화를 터득하기 보다는 이주민 부모의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고 소속감이 강하며 그 문화 습득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일탈 위험형이다. 주류 사회의 문화나 이주민 부모의 문화에 관심이 없고 두 문화에 대한 소속감 모두 낮게 나타난다. 사회 일탈의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가려고 한다.

2. 결혼이주민 자녀의 특수성

가. 부모의 국제결혼이주

전 지구적 차원의 급격한 사회변동 즉, 지구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자본, 물류 및 정보의 국가 간 교류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 수의 증가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이주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이들 중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여성결혼이주자들은 전지구화(globalization), 이주(migration)현상 및 성(gender)으로부터 복합적인 영향 하에 놓여있다. 가부장적 유교사회였던 한국사회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해 남녀성비의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왔다. 또한 1988년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국제결혼은 우리사회에 결혼이주민 가정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함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농어촌이나 산촌에서까지도 외국인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요인들이 되어왔다(서종남, 2010).

본 연구에서 말하는 결혼이주민이란 국적을 취득한 '혼인 귀화자'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들 여성결혼이주자들은 전지구적(역사적으로 한국에 이주해 온 이주자는 화교를 필두로 하여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그리고 국제결혼이주자 등)이나 한층 다양해진 다문화 가정의 유형과 그 자녀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Ⅱ-1>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포함시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표 II-1> 다문화 가정과 자녀의 유형

가정유형		자녀 유형
국제결혼 가정	초혼 가정	한국 출신 母 + 외국 출신 父의 자녀
		한국 출신 父 + 외국 출신 母의 자녀
	이혼 가정	외국 출신 母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재혼 가정	전처 소생의 한국 출신 자녀
외국 출생 후 한국에 입국(귀화)한 자녀('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		외국 출생 자녀
		한국 출생 자녀(무국적 자녀)
난민 가정		난민 가정 자녀

※ 출처 : 오성배(2011).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정책적 지원방안. p. 5.

교육부(2006)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였으나,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정책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노동자와의 혼인이나 국제결혼을 통해 출생한 한국인 혈통의 자녀를 코시안(KOSIAN=KOREAN+ASIAN)으로 부르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였으나, 이들에게 별도 명칭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낙인(stigma)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더 이상 이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교육부(2006)는 이들을 ‘국제결혼가정 자녀(또는 결혼이민자 자녀)’로 명명하되 통상 ‘다문화가정자녀’라 부르고 있다.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일을 의미하며, 한국사회에서도 국제결혼이 보편화되었다. 국제결혼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을 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장은애·최영, 2010).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619건에 불과하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2011년 22,265건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여성의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미국, 몽골 등의 순이다.

<표 II-2> 한국의 결혼이민 현황

(단위 :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혼인건수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외국인과의 혼인 (총 혼인 중 비중)	14,523 (4.6)	15,202 (5.0)	24,775 (8.2)	34,640 (11.2)	42,356 (13.5)	38,759 (11.7)	37,560 (10.9)	36,204 (11.0)	33,300 (10.8)	34,235 (10.5)	29,762 (9.0)
증 감	2,918	679	9,573	9,865	7,716	-3,597	-1,199	-1,356	-2,904	935	-4,473
증 감 륜	25.1	4.7	63.0	39.8	22.3	-8.5	-3.1	-3.6	-8.0	2.8	-13.1
■ 한국남성+외국여성	9,684	10,698	18,750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증 감 륜	39.4	10.5	75.3	33.9	22.4	-3.4	-3.7	-1.5	-10.7	4.5	-15.3
■ 한국여성+외국남성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7,497
증 감 륜	3.8	-6.9	33.8	58.3	22.0	-21.9	-1.3	-10.5	1.5	-2.4	-5.8

※ 출처 : 통계청(2011). 혼인통계. p.10.

2011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는 211,458명으로, 성별로는 여성이 188,580명으로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 이주민의 자녀는 151,154명이다.

<표 II-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단위 : 명)

결혼 이민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자(2011. 6월 현재)									자녀현황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11,458	22,878	188,580	141,454	18,561	123,093	69,804	4,317	65,487	151,154	76,985	74,169

※ 출처 : 행정안전부(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pp. 4-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시행 2011.01.24)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권오희(2006)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족 간 갈등문제를 부부간 의사소통과 갈등, 남편과 시부모의 생활방식 차이에서 오는 문제, 부부폭력, 남편의 술, 도박, 외도 등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문제점으로 언어 습득과정에서의 문제, 학업과 생활 적응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등이 있음을 밝혔다. 이 밖에 사회 활동의 문제로 사회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이용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의 문제, 국적에 관한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성장함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의 <표 II-4>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재학 중인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는 36,676명으로 학교 급별 비율이 초등학교 74.4%, 중학교 19.8%, 고등학교 5.8%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현저히 높다. 학령기 인구 중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4> 초·중·고 재학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현황

(단위 : 명)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6,795		924		279		7,998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2009	20,632	30.5	2,987	35.0	1,126	48.0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2011	27,285	15.6	7,246	50.5	2,145	32.0	36,676	22.0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6-2010).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2011 미발간 자료. p.3. 오성배(2011)에서 재인용

한국에서 결혼이주민 가정의 부모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에서 언급한 결혼이주민 가정의 갈등문제를 감안할 때 이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혼돈과 불안감을 갖게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와 외국인 어머니와 생활함으로써 언어와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문제를 보이거나 외국인 부모의 학습지원에 대한 결여, 그리고 학교에서의 따돌림 현상 등으로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설동훈, 2005; 조영달, 2006; 김재우, 2006; 이창호, 2008; 남윤주, 2009). 예컨대 설동훈(2005)은 그의 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17.6%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였으며, 따돌림 이유는 <표 II-5>와 같이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가 34.1%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 수준 분석 연구(이재분 외, 2002)에 나타난 일반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 경험 비율 13.4%와 비교할 때 이들의 집단 따돌림 경험은 비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따돌림 당한 이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 아이들의 경우 따돌림의 가장 큰 이유가 '잘난 척(29.4%)'을 했기 때문인 것과는 달리,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어머니의 출신국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다분히 그들의 가정과 부모에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5>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말하는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비율(%)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
전체	100.0

※ 출처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pp. 138-139.

또한 김재우(2006)는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정서적·신체적 위기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배척당했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러한 경험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학생이 되거나, 심한 경우 학업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창호(2008)는 다문화가정 중학생들이 정체성, 학업문제,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 관한 연구에서 면담에 응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반기지 않았으며 일반 한국학생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남윤주(2009)는 다문화가족 아동은 일반가족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과 높은 우울 수준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들은 자신이 처한 가정이나 부모에 대해 문화적 충돌로 인해 편견과 차별을 당하게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어 이는 학업은 물론 생활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되어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말해 주고 있다.

제주도인 경우에도 2011년 1월 기준으로 제주도내 결혼이주민 자녀는 1,58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대다수가 가임층에 속하기 때문에 출산에 따른 자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제주도인 경우 결혼이주민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영·유아층이 대다수인 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에 따르면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제주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중 597명(제주시 380명, 서귀포시 217명)이 254개소의 보육시설에서 보육 받고 있으며 한편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결혼 이주민 자녀는 제주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월 1일 기준으로 유치원 45명, 초등학교 280명, 중학교 54명, 고등학교 20명 총 399명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35%가 증가하였다.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및 부모의 출신국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증가의 흐름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장과정에 있어 정체성의 혼란의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표 II-6> 제주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총계	계	국제결혼 가정				계	외국가정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418	399	45	280	54	20	19	4	13	2	0
		11.28%	70.18%	13.53%	5.01%		21.05%	68.42%	10.53%	0.0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2).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 1.

<표 II-7>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출신국 학교급	중 국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대만	미국	러시아	기타	합계
유	21	7	10	5				6	49
초	94	77	50	24	12		3	25	293
중	13	25	6	4	1	1	2	4	56
고	5	10	1	2	1	0		1	20
계	133	119	67	35	14	9	5	36	418
비율(%)	31.8	28.5	16.0	8.4	3.3	2.2	1.2	8.6	100.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2).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p. 2.

나. 소수자로서의 결혼이주민 자녀

Parrillo(2010)에 따르면 소수자는 사전적의미로 육체적·문화적 특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아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수적으로 많고 적응을 떠나 지배 집단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자라는 개념은 인종, 민족, 성(性), 경제력, 연령, 신체상의 장애, 사상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을 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자녀가 이러한 소수자로서 우리사회에서 무관심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경시할 수 없다. 어느 사회이건 주류집단이 존재하고 각각의 소수자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에 대한 대응 방식을 갖고 있다. 소수자 집단의 주류 집단에 대한 대응 방식에는 회피(avoidance), 일탈(devian

ce), 저항(defiance), 수용(acceptance)이 있다. 주류집단의 차별적인 관행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역사적으로 차별관행들을 뒤로 하고 떠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피를 통한 것이다. 떠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수자들을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을 자기들 집단들 속에서만 행하기도 한다. 이는 주류 집단의 적대적 행동으로부터 소수자 집단을 보호할 수 있으나, 또한 배타성(clannishness), 비동화(nonassimilation)라는 비난을 축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법적·정치적 권력의 부족으로 소수자 집단은 유일한 선택으로 회피를 택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집단이 지속적으로 거부와 차별을 경험할 때, 그 구성원 중 일부는 주류 사회와 일체감을 느낄 수 없거나 그 규범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ladder)가 낮은 사람들은 -특히 괴롭힘 당하는 인종·민족 집단의 구성원들- 다른 사람들은 일탈로 보지만 자신들은 온당하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에 가하는 압력에 대응하기도 한다.

그리고 만약 소수자 집단이 응집성이 강하고 경제적 혹은 정치적 힘이 증대하고 있음을 안다면, 그 구성원들은 불공평한 관습에 도전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공공연히 행동할 것이다. 이는 저항의 형태로 소수자 집단은 차별에 도전함에 있어서 그 사회에서 집단의 지위에 관해 강력한 태도를 취한다.

종종 소수자의 지도자나 지지자들에게는 실망스럽게도, 많은 소수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인다. 집단의 일부는 미묘한 합리화로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시켜 매우 냉철하게 수용한다. 개인의 안전이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자 집단의 대응 방식의 결과로 지속적인 불평등을 경험하는 소수자 집단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며 자신들로 하여금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게끔 한다. 또한 편견과 차별의 관계는 순환하며 서로 영속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은 가끔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가 주류 집단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필요성과 갈등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주변성(marginality)을 띠게 된다. 이는 보통 소수자 집단이 사회주류에 들어가하고자 시도할 때 주변인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주류 집단의 문화적 양식을 내면화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불명확한 지위를 갖

게 되어, 더 이상 자기 집단 내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들 자신과 자신의 행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의 완전한 일원도 되지 못한다. 이는 성인이든 어린이든 간에 겪게 되는 갈등인 것이다.

결혼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두 세계 사이에 끼여 있음을 알게 된다. 가정에서의 아버지 문화와 어머니 문화의 다른 양육방식과 또한 학교와 다른 외부적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받게 되는 문화적 노출은 소속사회의 다른 아이들처럼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은 주류집단이 소수자인 부모의 방식을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배경 때문에 자신 또한 사회적으로 거부당한다는 사실을 빨리 배운다.

이재분(2008)은 소수자 대상의 한국사회 적응 교육으로써 다문화 교육은 이들을 상대적으로 낙인시키게 되며 이들의 낮은 정체감 및 자아 존중으로 귀결하게 만든다는 것을 주장한다. 실제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부모들 중 다수가 일본인이나 중국인이어서 실제로 외모상의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국과 주변국이 좋은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나 학교에서 관계형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선별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대상으로 만드는 분리주의적 다문화교육이 이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다문화가정 자녀로 낙인찍는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을 재낙인시키는 학교에서의 분리주의적 다문화 교육을 지양해야함을 제기하고 있다.

3.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

가. 선행연구의 개관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아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와 둘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정체성의 발달을 꾀하고자한 연구가 있다. 셋째,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 요인에 대한 연구

가 있다.

첫째, 유아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박미경·엄정애(2007)를 들 수 있다. 결혼 이민자 가정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 한 곳을 참여 관찰하고, 담당교사 10명과의 심층면담을 통한 연구 분석 결과 언어발달의 양상은 구어 능력에 있어서 언어적 미숙으로 침묵과 장문 단답이 보여 지고 있었고, 문해 능력에 있어서는 문해 활동을 기피하는가 하면 부모의 문자 학습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글자는 바르게 쓰지만 읽지는 못하는 특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질 높은 언어 중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또한, 또래관계형성은 혼자서 놀이 하는가 하면 소극적으로 친구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름'의 자원을 활용하여 친구가 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어 능력과 자신들의 성격에 따라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관계 형성의 다양한 형태들은 나름대로 적응을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지만 그 자각의 정도와 형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외모가 다름에도 한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생활하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신을 당연히 한국인으로만 생각하는 형태가 있었다. 한편, 현재 살고 있는 한국과 어머니 나라 모두를 자신들의 나라라고 인식하거나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 나라와 다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형태도 있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한국인으로만 동화될 것을 강요하는 가정환경과 교육은 향후 정체성 혼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의 발달 프로그램의 구안에 초점을 둔 연구로 권순희(2007), 김석원(2008), 부향숙·김진한(2010), 권유미(2011)를 들 수 있다.

권순희(2007)는 결혼이주민 자녀인 경우 차별적인 교사의 대우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 동료나 선배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면 학생만의 상담 지도가 아닌 부모와 가족을 상대로 한 상담 및 지도와 한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매결연 방법을 통한 가족단위 연계프로그램을 구안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석원(2008)은 '제3문화 아이들(TCK)의 정체성 분석과 교육적 대안 탐색'에서 가치관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성장기에 해외에서 거주한 TCK의 정체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교육적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급격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성장기의 일정부분을 부모의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 속에서 자란 아이들, 일명 '제3문화의 아이(The Third Culture Kids : TCK)' 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의 테드워드(Ted Ward)는 이런 아이들이 21세기 시민의 원형(phototype)이라고 말한 바 있다(김동화, 1999를 김석원, 2008에서 재인용). TCK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는 자기인식과, 세계화 시대에 자신들의 독특한 성장기의 경험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의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이 부족하며, 그들이 거주했던 국가, 만났던 민족, 외국계 학교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들이 모호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고백한다. 이에 TCK와 관련한 한국교육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유지, 신장시키는 교육, TCK와 한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상생하는 교육, 지역시민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필요로 함을 제기한다.

부향숙·김진한(2010)은 '미국 인종 및 민족 정체성 발달 이론으로부터 조망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애 발달 이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을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발달 이론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문화적 상황의 배경을 인종 및 민족으로 한정하여 검토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체성 발달 이론은 한국의 일반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이론과는 분리해서 독자적인 발달 이론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전 생애적인 관점, 다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제기한다. 또한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자기규정, 사회적인 규정, 그리고 맥락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한데 의의가 있다.

권유미(2011)은 '다문화 학습 활동을 통한 문화 정체성의 발달'에서 3학년 여자 어린이 3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다문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반성 및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문화적 배경에 따른 다문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여 문화 정체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결과 학생의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접근함으로써 개인과 가정에 대한 문화 정체감을 확인하여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어머니 나라 문화와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고 직접 참여하는 문화간 이해 학습 전략은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을 증가 시키고 다양한 문화 모습

에 대한 흥미를 증가 시킬 수 있었다. 다문화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의 문제점을 알고 세계 시민성을 도모하는 반 편견 학습을 통하여 긍정적인 다문화 사회의 참여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이는 학습대상자의 구체적인 환경과 특색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성과, 다문화 학습 활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정체감 탐색에서 시작하여 가족, 사회, 국가 등 문화적 배경을 확대하면서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적합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셋째,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 요인에 대한 연구로써 결혼이주민 자녀의 귀속적 변수(외모, 성, 경제적요인, 국적 등)에 주목한 경우다.

오성배(2005)는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코시안(Kosian)은 코리안(Korean)과 아시안(Asian)이 합성하여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코시안은 일반적으로 한국인과 아시아계 외국인의 결혼을 통하여 출생한 2세를 일컫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서 출생·성장하는 한국국적의 자녀로 한정하여 정의한다(오성배, 2005). 연구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코시안의 어머니,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코시안 아동은 어머니의 언어와 문화사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하였고, 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입학 이전의 언어학습과 정체성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입학 이후에도 다른 아동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이었다. 특히 언어학습능력의 부족은 정체성과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외모의 특성 또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인관계 형성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선진(2007)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라북도 초등학교 5,6학년 국제결혼자녀 86명과 일반아동 86명에 설문조사(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척도이용)하였다. 그 결과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미래 확신성, 주도성, 친밀성 항목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서 사회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외모의 차이, 한국어 수준, 따돌림 경험,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 중에서 외모의 차이와 한국어 수준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신혜정(2007)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

구'에서 서울과 전라도의 다문화가정 자녀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반적인 특성(부모의 국적과 학력, 자녀의 연령과 성별, 종교 등)과 언어적인 특성(연구대상자의 한국어 실력, 어머니나라의 언어실력, 어머니의 영어실력,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등), 이중문화의 특성(이중 언어 사용, 문화 참여, 음악, 영화, TV, 음식, 의복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이 자아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사회적지지, 학교 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국적과 자녀의 한국어 실력, 사회적지지, 학교 적응,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따라서 자아 정체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자아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외모의 차이와 한국어 수준의 변인 외(송선진, 2007)에 '사회적 지지, 학교 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라는 사회적 변인을 추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이 포함된다(신혜정, 2007).

다음은 결혼이주민 자녀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타자화,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 문화적응)에 따른 정체성형성을 다룬 연구로 신혜정(2007), 박미경·엄정애(2007), 심우엽(2009, 2010), 박나현(2011)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신혜정(2007)의 연구와 더불어 박미경·엄정애(2007)는 교사들의 결혼이민자 가정유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오히려 더 편견을 만들고 차별시키게 한다며 타자화에 대한 우려로 '지나친 도움'과 '지나친 배려'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 하여금 더욱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자세를 가지게 하므로 그냥 '한국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시혜적 차원의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이들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심우엽(2009)은 '다문화 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에서 강원도 내 초등학교 5, 6학년 다문화 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의 민족 관련 의식(단일민족의식 및 민족정체성)과 정서적 특성(따돌림, 우울증,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사회적지지), 교과 성적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아동은 단일 민족

사상이 강한 반면 다문화 아동은 한국인으로서 민족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사회적 지지, 자존감이 낮은 반면 우울증은 높고, 공격성향은 일반 아동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교과별 성적은 개인차가 있어서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이 학생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 민족 및 민족정체성 관련 교육의 필요성과 결혼이주민 자녀를 위한 사회적 기술 훈련, 교사와 부모 대상의 사회적 기술 및 사회적 지지 향상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심우엽(2010)은 '초등학생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서울과 강원도 4, 6학년 718명의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인종편견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인 발달론적 집단간이론(Development intergroup theory)과 사회정체성 발달이론(Social identity development theory)에 근거하여 단일민족 사고, 자민족중심주의, 인종배제주의, 다문화친구에 대한 개방성, 자아 존중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발달론적 집단간이론은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 대하여 갖는 편견의 근원을 설명하려는 이론인 집단간이론(Intergroup theory)이 발전된 것이다(Bigler & Hughes, 2009를 심우엽, 2010에서 재인용). 또한 집단간 이론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려하며, 정체성은 집단정체성에 근거하여 형성되는데 외집단(이질집단, outgroup)보다는 내집단(동질집단, ingroup)에 근거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그래서 내집단에 대하여는 동질감을 느끼고 선호하며 외집단에 대하여는 이질감을 느끼고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내집단 선호도는 자존감(self-esteem)과도 관계가 있어서 가령 미국의 백인 아동들은 자존감이 높을수록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편견이 높다고 한다(Davis, Leman, Barrett, 2007를 심우엽, 2010에서 재인용). 조사 결과 많은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친구들을 낮게 평가하고, 차별하고 있으며, 그들을 한국인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단일민족 사고가 강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자민족중심주의, 인종배제주의, 다문화친구에 대한 개방성,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나현(2011)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실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정체성 형성'에서 필리핀 어머니를 둔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2개월 간 언어적 상호작용과 정체성 형성의 문제를 관찰하였다. 연구의 결과 사례 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특성은 '관심 추구와 외면', '표현력 부족과 소통 혼란', '소통의 노력과 선택적 반응'을 보였고, 또한 사례 아동은 '이방인', '유아', '잠재적 능력자'의 정체성을 보였

으며, 결혼이주민 가정 아동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적 지원은 결혼이주민 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과 일반 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결혼이주민 가정 아동의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를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논한 것으로, 한 아동의 사례를 장기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예와 상황 맥락 속의 실체를 기술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요인

정체성 형성의 이론은 정체성이 불안정의 상태에서 안정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단계론적인 접근 방식과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맥락적 접근이 있다.

1) 단계론적 접근

정체성에 대한 단계론적 접근에서는 정체성이 불안의 상태에서 안정성의 상태로 발달한다고 가정한다(Carola Suárez-Orozco, 2004). 이는 Erikson(1968)의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정체성은 성인이 되어가는 작업이며,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자아정체성을 만들려고 시도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가정, 학교, 이웃, 그리고 국가의 다양한 사회적 환경들 간에 연속성이 있을 때 정체성은 덜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세계화의 시대에 사회적 공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많은 불연속성과 단절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은 청소년기동안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되며 모든 젊은이는 민족 혹은 인종의 무의식의 단계에서 인종적 탐구의 단계로의 이행으로 가고 마침내 인종, 민족의 정체성 획득의 단계로 이동한다(Marcia, 1966을 Carola Suárez-Orozco, 2004에서 재인용). 또한 다른 이들은 정체성 형성의 과정은 선형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때마다 다른 이전 단계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나선형"임을 지적한다(Parham, 1989를 Carola Suárez-Orozco, 2004에서 재인용).

2) 사회맥락적 접근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 사회맥락적 접근에서는 정체성이 사회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다. 사회맥락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성취적 변수나 귀속적 변수인 요인에 따른 영향 요인이 다를 수 있다.

Suárez-Orozco(2000)는 정체성 형성이 단순히 개인이 안정적인 정체성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유동적이고 맥락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사회적 맥락은 정체성의 형성을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정체성을 주어진(Ascribed)정체성과 획득한(Achived)정체성으로 나누는데 주어진 정체성은 동료들에 의해 '당신은 우리집단의 구성원이다.' 혹은 지배문화의 구성원에 의해 '당신은 저 집단의 구성원이다.'라고 부과한 결과이다. 또한 획득한 정체성은 '나는 이 집단의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한 개인이 어떤 소속감을 갖는 정도이다. Suárez-Orozco(2000)에 의하면 Goffman의 개인정체성과 사회정체성은 주어진(Ascribed)정체성으로 자아정체성은 획득한(Achived) 정체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Goffman(1963)은 정체성을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 자아 정체성(Ego Identity)'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낯선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가 첫 모습을 보고 그가 속한 범주와 속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에서 사회적 정체성의 개념을 알 수 있으며, 이 때의 속성은 직업과 같은 사회구조적 속성뿐 아니라 정직함과 같은 개인적 속성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보다는 '사회적 정체성'이 더 적절한 용어라고 한다. 개인적 정체성이란 단정적 정표 혹은 정체성 풋말-한 번에 한 인물만이 적합하며, 과거에 적합했던 인물은 현재도 적합하고 미래에도 그러할 특성-과 이 풋말을 통해 개인에게 부착되는 생애사 항목들의 고유한 조합만을 의미한다. 결국 개인적 정체성이란 개인이 모든 타인과 구별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자아 정체성이란 자신의 상황,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의 결과로 얻게 된 연속성과 특질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한다. 자아정체감은 무엇보다 문제의 정체성을 가진 개인의 필연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이고 성찰적인 문제이다. 즉 정체성을 일차적으로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고, 개인적 측면은 다시 객관적 측면(개인적 정체성)과 주관적 측면(자아정체성)으로 나누어 개념화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 정체성의 구분은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Goffman이 구분한 정체성 각각의 개념을 서술하면, 개인적 정체성은 정체성의 객관적인 면으로서 '개인이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의 조합'이라 할 수 있고, 사회적 정체성은 '특정 개인의 개인적 속성이나 사회적 속성 등에 대하여 사회- 예를 들면 집단 내의 사람들-이 부여한 정체성'이다. 그리고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타인의 태도 등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에게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민 자녀인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적 정체성은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외모적 차이가 있으며, 언어 사용에 있어 미숙하다. 이러한 요인으로 자신이 속한 학교나 사회, 공동체에서 '다른 존재'나 '약자'로 보여져 고정관념, 차별, 편견, 낙인을 갖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의 영향으로 아동이 자신에 대한 감정이 자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박나현, 2011).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모, 성, 경제적 요인, 국적 등의 귀속적 변수(오성배, 2005; 송성진, 2007; 신혜정, 2007)와 타자화, 사회적 지지, 학교 적응, 문화 적응 등의 성취적 변수(신혜정, 2007; 박미경·엄정애, 2007; 심우엽, 2009,2010; 박나현, 2011)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성취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민정(2008)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민족정체성 형성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 초국가적 양육경험, 학교에서 인지되는 방식, 한국 내 아버지(이주민)의 위치와 차별 경험 등을 제시하였다.

Suárez-Orozco(2004)는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주어질 뿐 아니라 구성되어 감을 강조하면서 정체성 형성 요인으로 문화적 접촉, 문화 활동의 참여, 이주민 문화에 대한 수용, 이주민 문화에 대한 주류 사회의 구조적 문화적 포용정도,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의 틀

국제결혼자녀의 정체성을 연구한 김민정(2008)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족 자녀의 정체성은 ‘한국인 유형’, ‘경계인 유형’, ‘갈등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렇게 정체성을 일차원의 연속선상의 관점에서 유형화하는 것의 장점은 주류문화에 대한 접근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체성의 다양성이 단지 주류 문화의 적응의 정도의 차이로만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출신국가의 어머니를 둔 자녀들 사이의 정체성의 다양성에 보려하기에 정체성을 이차원에서 유형화 시키고자한다. 주류문화의 참여와 비주류문화의 참여라는 두 개의 척도에서 두 문화를 좀 더 대등하게 놓고, 사실상 특정한 정체성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한 정체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류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척도를 가지고 한국사회의 적응방식이 역동적이고 다양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보이는 정체성을 살펴 보기 위해 제주외국인쉼터에 다니는 초등학생 6명을 관찰·면담하였다. 같은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라 할지라도 이들의 정체성은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전제로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을 필리핀과 한국 두 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정도에 따라 다음 <표 Ⅲ-1>과 같이 유형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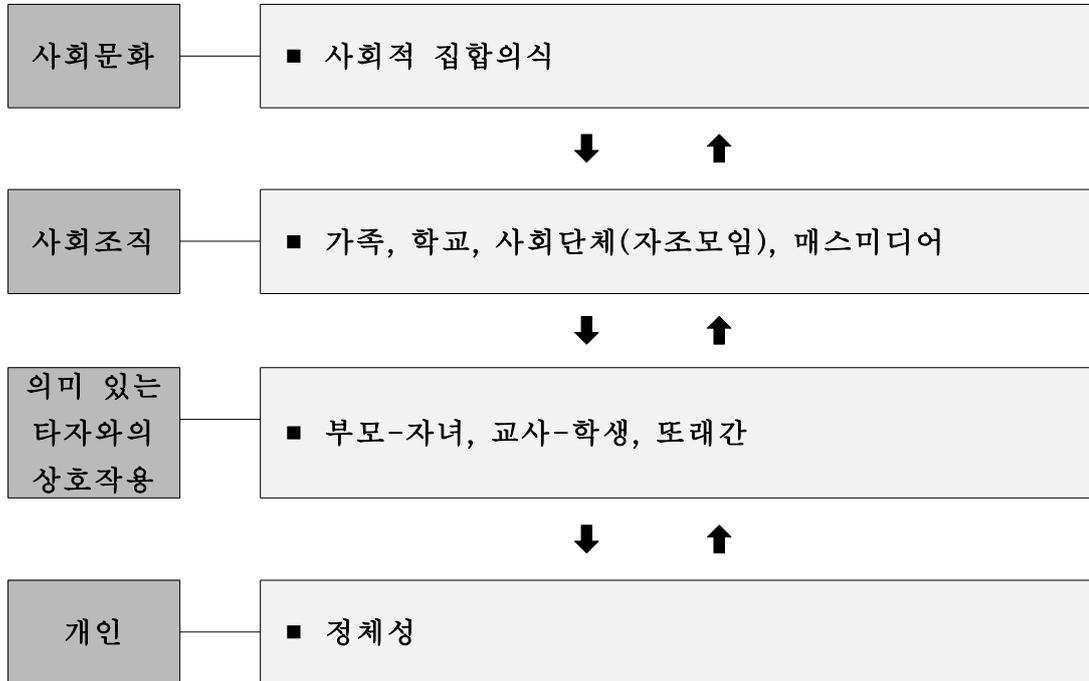
<표 III-1> 두 사회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차이에 따른 정체성 유형

구 분		제주지역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강	약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 (학교)	강	균형 지향형	주류문화 지향형
	약	하위문화 우세형	일탈 위험형

제주지역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강한 경우를 ‘균형 지향형’이라 하고, 제주지역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약하나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강한 경우를 ‘주류문화 지향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주지역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강하나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한 경우를 ‘하위문화 우세형’이라 하고, 제주지역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한 경우를 ‘일탈 위험형’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을 유형화하고 이를 사회맥락적 접근을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형성이 객관적인 것보다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가능성이 있고,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 획득한 정체성인 경우 행위자의 능동적 참여와 일반인이 이주민 자녀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결혼이주민 자녀가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서 타자화나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 문화적응의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신혜정, 2007; 박미경·엄정애, 2007; 심우엽, 2009,2010; 박나현, 2011). 그리고 부향숙·김진한(2010)은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에 관하여 자기 규정, 사회적인 규정, 그리고 맥락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 요인을 사회 문화, 사회조직,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찾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III-1] 과 같다.



[그림 III-1] 결혼이주민 자녀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요인

사회문화란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집합의식을 가리키며 사회조직은 이주민의 생활환경으로써 가족, 학교, 사회단체(이주민 자조모임 포함) 및 매스 미디어 등을 가리킨다.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이란 부모-자녀, 교사-학생, 또래 집단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 사회문화는 사회조직과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은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조직 나아가 사회문화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서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을 택하게 된 것은 중국, 일본, 몽골 등의 동북아시아권의 문화는 한국 문화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온 결혼이주민의 자녀로 태어난 아동의 경우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이 다른 지역의 경우보다는 덜하고, 피부색을 보더라도 크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 타자화의 경험 역시 적다. '타자화'란 소수집단의 정체성 형성 혹은 현실 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소수집단의 일상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식은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항상 주류집단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 스스로를 이해해야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양정혜, 2007을 황라경, 2009에서 재인용).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는 한국의 문화와 거리가 크며, 피부색으로 인한 타자화의 경험 역시 크다. 그래서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서도 혼돈의 정도가 큼을 예견할 수 있다.

제주지역을 선정한 것은 결혼이주민 자녀의 삶의 기반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한국이라는 범위보다 제주라는 현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김민호·오성배, 2011). 제주인 경우 전통적으로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다. 예로부터 제주사람들이 섬으로 이주해온 육지 사람을 비하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로 '육지 것'이란 단어가 있듯이, '이방인' '육지사람'에 대한 차별의 시선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사회맥락적 조건하에서 정체성의 도전감이 클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민이 아닌 이들의 자녀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주민인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 경제적 적응의 문제를 갖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성공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갖고 한국을 찾았다. 반면에 그들의 2세대인 이주민 자녀들은 한국 사회에서 차별의 시선을 받으며 태어났고, 어머니만큼 모국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은 결혼이주민의 문화화 과정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전경수, 2008). 이 가운데서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부딪히게 되는 정체성의 혼돈이나 갈등은 결혼이주민의 경우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접근이 용이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특성이 잘 나타나는 참여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 위해 제주지역 이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하나인 제주외국인쉼터에 오는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택하였다. 제주외국인쉼터는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 위원회가 2007년 4월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주도에 거주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문화적응 및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제주도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매주 제주외국인쉼터 놀이교실에서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놀이, 학습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명단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 참여자

(2012. 3월 기준)

순번	이름	연령	학년	성별	모출신국가	교육기관
1	강주영	11	초등학교 4학년	남	필리핀	A초등학교
2	이현지	11	초등학교 4학년	여	"	B초등학교
3	강준서	12	초등학교 5학년	남	"	A초등학교
4	홍연재	13	초등학교 6학년	여	"	C초등학교
5	이희정	13	초등학교 6학년	여	"	B초등학교
6	박예빈	13	중학교 1학년	여	"	D여자중학교

※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참여자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2011년 9월 28일부터 2012년 4월 29일까지 7개월에 걸쳐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 제주외국인쉼터의 놀이 교실에서 참여관찰과 면담을 하였다. 주로 아동들과의 자연스러운 놀이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때론 별도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개인 성향이나 표현정도에 따라 친밀감을 형성하여가며 알아가는 데는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참여자의 담임선생님과의 전화 상담 및 어머니와의 면담을 갖기도 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통합, 범주화 시켜 의미를 분석하였다. 우선, 1차 분석으로 연구 참여자별, 일자별 분류를 하고 각각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을 찾고 대략 네 가지로 분류했으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드러낼 사회적 요인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몇 차례 추가적인 관찰과 추가적인 면담을 통하여 자료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일한 범주끼리 분류하였고, 각 범주에 포함된 사례를 중심으로 의미를 해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본 연구에서 살펴 본 6명의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한국 문화와 필리핀 문화 양쪽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나 주류 사회인 한국 문화에 비해 필리핀 문화를 동일시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장애와 갈등을 보였다. 특히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희정이가 다문화가정이라는 데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조심스럽다. 학교에서는 멘토링이나 여러 가지 다문화관련 조사를 하여 희정이에게 본의 아니게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거부반응이 있다. 예민한 사항이다.”

(2011.11.01 이희정 담임)

“학교 선생님이 너를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었는데 대해, 예빈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나만 잘해주는 것도 차별이다. 똑같이 잘 해주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2011.09.25 박예빈)

하지만 6명의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주민 공동체와 한국 사회의 소속감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가. 균형 지향형: “친구들 모두와 친하게 지내요.”

이 유형의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두 문화의 경계선 상에서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고, 양쪽 문화를 오간다.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호칭에 매우 부정적이나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 잘 지낸다. 또한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도 자주 나오며 필리핀 이주민 자녀들과 동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1. 이희정의 경우

“운동도 잘해서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4기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다. 그야말로 보통의 한국의 어린이이다.”(2010.12 이희정 4학년 담임교사의 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0.12월 발간 다우렁 여는 세상에서 인용)

(학교생활에서 힘든 점은 없니?)

“그런 것 없어요. 친구들 모두 다 친하게 지내는데요.” (2011.11.06 이희정)

2. 이현지의 경우

“현지는 언니 및 다른 국제결혼가족 자녀들 및 연구자와 함께 한국의 전통놀이인 ‘공기놀이’를 하였고, 제주외국인쉼터에서 친교의 시간이 끝날 무렵 부모로부터 받은 필리핀 과자(돼지껍질의 모양과 향이 남)를 맛있게 먹었다.”

(2011.09.25 연구자 관찰)

“봉사자 언니들에서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관계를 느낄 수 있었다. 먼저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하는 일을 보기가 드물었는데, 자기의 학교 이야기에 대하여 언니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같았다.”

(2011.11.06 연구자 관찰)

나. 주류문화 지향형: “나는 00성당 복사단원이예요.”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필리핀과 한국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데 갈등을 경험하나 가능한 한 한국인이 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강주영의 경우

“5살까지 필리핀에서 살았다고 들었는데, 학과목 중에서 영어는 약간 취약하고 다른 공부는 중간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교우관계는 원만한 편이며 특별히 문제가 되는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3학년 초에 엄마가 필리핀임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 본인에게 물어보니 싫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멘토링 간에 주영이에게 한국의 문화를 주영이에게 알리기보다는 ‘필리핀의 문화를 알아가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 주영이와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엄마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주고 말이죠. 필리핀의 문화나 생활 등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 엄마의 도움을 얻어 과제를 해오는 등의 학습을 해가면서 점차 필리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들에 대해 알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음악수업시간에 필리핀 음악 중에 주영이가 알고 있는 음악이 나오게 되어 주영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음악이라며 좋아하는(뽐내는) 듯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보다 무언가 더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는지 학급에서도 자신의 엄마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에 거리낌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2011.12.01 강주영 담임 전화상담)

천주교 제주교구가 주최하는 성소주일 및 세계 이민의 날 행사에 엄마와 여동생은 필리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반면에 필리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연동성당 복사반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였다. 이들의 필리핀 공동체 참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2.04.29 연구자 관찰)

다. 하위문화 우세형: “장래 희망은 연예인요.”

이 유형의 결혼이주민 자녀는 한국문화와 필리핀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갈등을 느끼고 있다. 학교 공부 등 한국 사회의 적응에 실패하고, 교육외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찾고자 한다. 동시에 필리핀어와 필리핀 문화에 익숙한 편이고 필리핀 이주공동체에 자주 참여하며 비슷한 처지의 이주민 자녀들과 동료의식을 느끼고자 한다.

4. 강준서의 경우

“학급에서 자신이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다문화가정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반 친구들과의 어울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멀리 떨어진 다른 반 친구 (다문화가정 아동)를 찾아가 놀곤 했습니다.” (2011.11.03 강준서 담임)

“학교생활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편이며 친구들과의 교류에 있어 비적극적이었다. 반에 거친 아동이 많이 있어서 눈에 드러나는 왕따 정도는 아니지만 상호 교류에 어려움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준서 자체도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스스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적은 듯하였다. 부모님께도 약간 과장되게 학교생활을 이야기하여 일반 친구들 사이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도 부모님이 신경을 쓰시게 하는 듯하다.”

(2012.03.06 강준서 4학년 담임과 전화상담)

5. 홍연재의 경우

“노래나 연예인, 의상에 대해 관심이 많아 보이고, 연예인 기질이 많아 보인다. 춤과 노래에 능통하다. 그러나, 공부는 우리 반에서 최하성적이다. 심각한 학습 결손으로 앞으로 걱정이 된다.” (2011.12.01 홍연재 담임 전화상담)

봉사언니들과 아주 친근한 관계를 보이며 장난을 친다. 장래 희망은 연예인이 라면서 같이 데려온 친구(동네언니)와 핸드폰을 꺼놓고서 자신의 춤 솜씨를 보인다. 희정이랑 연재가 서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장난을 하며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2.01.15 연구자 관찰)

홍연재는 엄마하고 필리핀 사투리어로 이야기를 한다. 필리핀공동체 자조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필리핀에 상당부분 체류 경험이 많아서, 필리핀 문화에 아주 익숙한 편이다. 외모 상 두드러지는 차이로 차별당한 경험이 있고, 낮은 학업성취로 점점 주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02.05 연구자 관찰)

“필리핀에 갔을 때 외삼촌한테 몰래 담배 피워 봤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전에 인터넷으로 사귄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부방에서 연하 남자 친구를 만났어요.”

(2012.02.26 홍연재)

“학교 친구들은 네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란 것을 아니? 그리고 너를 달리 대하지는 않니?”라는 질문에 “친구들한테 차별받은 적이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적이 있으며,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한다.

(2012.02.26 홍연재)

라. 일탈 위험형: “술 마시고 담배 피 봤어요.”

이 유형의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의 벽을 넘어서서 간혹 일탈의 형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가고 있었다.

6. 박예빈의 경우

“아마 예빈이에게는 지금이 가장 학교생활에 있어서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정형편으로 잦은 전학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학교에서는 심한 왕따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12.01 박예빈담임)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엄마한테 허락받았는데요. 친구 오빠가 술 마시러 오라고 해서 00중학교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 봤어요. 엄마한테 말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2012.02.06 박예빈)

경제적인 어려움, 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에 서툰 어머니와의 생활은 그 자녀가 사회에 적응해 가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엄마가 ‘괴롭히지 말라.’고 하면서 한국말을 안 배우려 해요. 학부모 설문지(만족도 조사)할 때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몰라 어렵워요. 또 학교에서 설문지를 안 해 가서 혼나기도 해요.”

(2011.10.02 박예빈)

또한 보통의 아동과 다른 가정환경에 놓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 경험을 갖기도 한다.

“처음 외모 상에서 다른 아이와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학업성적도 반에서 하수준이면서 특히 국어, 수학에 약하다. 학교를 옮겨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예빈이가 올해 제일 행복하게 보내지 않았나 싶다. 학기 초에 몇몇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일이 있어서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다행히도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 밝고 쾌활하게 지내는 것 같다.”

(2011.12.01 박예빈 담임)

한편 예빈이는 필리핀 문화와의 접촉이나 제주지역 필리핀 공동체에 대한 참여도 소극적이다.

“엄마가 필리핀 음식 해 주는 것이 싫다.”

(2011.10.02 박예빈)

“예빈이는 삼위일체 성당에서 개최된 성소 주일 및 세계 이민의 날 행사에 엄마와 함께 참석했으나 미사 중에 미리 정해진 다문화가정 자리에 앉지 않고, 연재와 함께 성당 뒷자리에 따로 앉았다. 미사가 지루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같은 또래의 회정이는 다문화가정 자리에 앉은 것과 대조된다. 예빈이는 자신이 다문화가정 자녀, 필리핀 공동체 구성원으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다.”

(2012.04.29 연구자 관찰)

2.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요인

분석의 틀에 따라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 작용

1) 이주민 부모와의 관계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 양상이 부모의 심리적 안정,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이주민 자녀의 필리핀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의 차이는 이 같은 이주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가) 부모의 심리적 안정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서 이주민 부모의 한국 사회정착에 따른 이주민으로서, 부모로서의 정체성 정립과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 '일탈 위험'이나 '하위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이는 이주민 자녀들은 '균형지향'이나 '주류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이는 이주민 자녀들보다 그 부모의 심리적 불안정이 더욱 컸다. 예빈이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사망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삶의 의욕이 저하됨을 보여준다. 예빈이 어머니는 자녀의 필리핀어 학습에 대한 요구, 한국 음식 조리에 대한 요구, 취업과 노동에 대한 요구 등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녀에 대한 뒷바라지가 크게 부족했다. 그 결과 예빈이의 경우 '일탈위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연재 어머니의 경우 남편이 선원으로서 10일 내지 15일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게다가 한국어도 서툴러 한국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부족한 편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예빈이와 연재는 이 같은 어머니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어머니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히려 비주류 하위 문화의 친구들과 교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부모가 자녀에 대해 보이는 모성애의 표현 정도는 부모에 따라 다르다. Erikson(1980)에 따르면 청소년기 이전 심리 사회적 발달 과업인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인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뒤따른다. 그만큼 영유아 및 아동기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은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를 제주외국인쉼터에서 관찰한 결과와 이주민 자녀들과의 면담에 따르면 이주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가 자녀의 정체성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균형 지향’이나 ‘주류문화 지향’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은 ‘하위문화 우세’나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보인 아이들에 비해 엄마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애정표현을 받고 있는 편이다.

(다) 부모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필리핀을 방문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 나라의 언어인 필리핀어 습득과 필리핀 문화에 대한 관심 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균형 지향’이나 ‘주류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필리핀어(따갈로그어) 구사능력이 극히 저조한 반면 하위문화 우세나 일탈위험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필리핀어를 약간이나마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필리핀의 체류 경험이 있었던 연재는 어머니와 필리핀어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필리핀어 구사에 능숙했다.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의 이주민 부모와의 관계와 정체성 유형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이주민 부모와의 관계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균형지향	주류문화 지향	하위문화 우세	일탈 위험
부모의 심리적 안정	안정	안정	불안정	불안정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관심	관심	무관심	무관심
부모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	무관심	무관심	관심	관심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 이주민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달랐다. ‘하위문화 우세형’이나 ‘일탈 위험형’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의 경우, ‘균형 지향형’이나 ‘주류문화 지향형’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에 비해 그 부모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했고, 자녀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반면에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 대해서는 다소 적극성을 보였다.

2) 담임교사와의 관계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은 학업성취,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 심리적 지지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가 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 결혼이주민 자녀의 학업 성취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학습보조자로서 이주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위문화 우세’와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보이는 이주민 자녀들의 학업성취는 거의 반에서 하위성적인 반면 ‘균형 지향’, ‘주류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은 중간 혹은 그 이상의 학업성취를 보이고 있다. 곧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의 정도가 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민 자녀의 낮은 학업성취는 자아개념 및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낮은 학업성취의 원인을 이주민 부모와 연관시킬 경우 자신이 필리핀의 인종 및 문화와 연계되어 있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을 띠는 것이다. 이는 곧 정체성 혼돈으로 이어진다.

“엄마가 한국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큰아빠가 학원을 소개해주셔서 다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학원에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힘들어요.”

(2011.10.23 박예빈)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반에서 최하성적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 과학은 아주 심하다. 유일하게 영어과목만 중하의 성적을 보인다.”

(2011.11.06 홍연재 담임)

“학교에서 미술이나 체육은 좋은데 국어랑 사회는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2011.12.01 이현지)

“수학과 국어과의 학습 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어휘수준이 1,2학년아동 수준이어서 학습을 또래집단들의 이해수준보다는 다소 떨어지나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주면 곧잘 따라하곤 한다. 수학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가르치면 이해를 하기도 한다.”

(2011.12.01 이현지 담임)

(나) 결혼이주민 자녀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수준에 대한 교사의 기대
교사들의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에 대한 기대는 같지 않았다. 교사들은 이주민 자녀들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수준에 대해 대체로 낮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그말리온 이펙트(Pygmalion Effect) 연구결과가 시사하듯이, 교사의 기대 수준은 학생의 능력 발휘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혼돈은 교사의 기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균형 지향’과 ‘주류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은 ‘일탈 위험’이나 ‘하위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에 비해 교사로부터 긍정적 기대를 받고 있다.

“희정이는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달한 성격으로 몸으로 하는 거친 운동을 좋아한다. 소규모 학교여서 그런지 남자 친구들과 축구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학교 성적도 중간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학 과목을 좋아하고 흥미있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12.01 이희정 담임)

“학교 측에서의 다문화가정의 아동 명단 통보를 받고서 준서가 다문화가정의 아동임을 알게 되었다. 준서는 학교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편이며 친구들과의 교류에 있어 비적극적이다. 성품은 착하나 과제 등에 불성실한 면을 보이고 있다.”

(2012.03.06 강준서 담임)

(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심리적 지지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결혼이주민 자녀에 대해 ‘다문화업무’로써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단지 행정적 처리에 그치지 않고 교사에 따라 이주민 자녀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균형 지향’과 ‘주류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교사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주민 자녀가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라 불리며, 일반 아동들과 구별되기 쉬운 상황에서, 담임교사들은 다문화가정이란 표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이주민 자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긍정적 강화를 함으로써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연구 참여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다문화 아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태도를 가지고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낙인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 곧 상징적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다문화가정’이라는 언어 사용의 빈도, 정도에 따라 정체성 형성에 갈등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낙인은 결혼이주민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이주민 부모 대부분이 담임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눴던 적이 없었다. 또한 자녀들이 혹여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들로 하여금 방어의 벽을 쌓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수용적 자세를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넌 우리와 다르다.’는 입장에서 문화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문화교육과 ‘너도 우리와 같다.’라는 자세에서 출발하는 다문화교육은 다르기 때문이다.

“희정이가 다문화가정이라는데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조심스럽다. 학교

에서는 멘토링이나 여러 가지 다문화관련 조사를 하여 희정에게 본의 아니게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거부반응이 있다. 예민한 사항이다.”

(2011.11.01 이희정 담임)

“3학년 초에 엄마가 필리핀임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 본인에게 물어보니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멘토링 시간에 주영이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보다는 ‘필리핀의 문화를 알아가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 주영이와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엄마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주고 말이죠.”

(2011.12.01 강주영 담임)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 담임교사와의 관계와 정체성 유형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IV-2>와 같다.

<표 IV-2> 교사의 기대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균형지향	주류문화 지향	하위문화 우세	일탈 위험
학업 성취	중간	중간	하위	하위
교사의 기대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교사의 심리적 지지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 담임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은 달랐다. ‘균형 지향형’과 ‘주류문화 지향형’의 아이들은 학업 성취에 있어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고 있으며, 교사로부터 비교적 긍정적 기대를 받고 교사의 심리적 지지를 경험한 반면에 ‘하위문화 우세형’이나 ‘일탈 위험형’의 아이들은 학업 성취에 있어서 하위의 성적을 받고 있으며 교사의 기대 역시 부정적이며 심리적 지지

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3) 또래들과의 관계

‘균형 지향’이나 ‘주류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학교에서 두드러진 왕따 경험이 없었던 반면 ‘하위문화 우세’와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왕따 경험이 분명했다. 이와 관련 왕따 경험을 했던 ‘하위문화 우세’,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균형 지향’ 혹은 ‘주류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과는 달리 학교에서 비주류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흡연, 쌍욕하기, 이성친구 교제 등의 행태를 보였다.

(친구들이 많이 있니?)

“친구 많이 없어요. 제가 3학년 때예요. 들통이 나버렸어요. 애들이 내가 다문화가정인 걸 알고요. 막 놀리고요.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그 때 저보고 친구들이 ‘몽골놈’¹⁾이라고 놀렸어요.”

(2011.10.23 강준서)

“아마 예빈이에게는 지금이 가장 학교생활에 있어서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정형편으로 잦은 전학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학교에서는 심한 왕따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12.01 박예빈 담임)

“학교 친구들은 네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란 것을 아니? 그리고 너를 달리 대하지는 않니?”

“친구들한테 차별받은 적이 있어요.”

(2012.02.26 홍연재)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 또래와의 관계와 정체성 유형과의 관계를 정

1) 제주도에서 가장 심한 욕은 "몽골놈의 새끼"라고 한다. 고려시대 몽골족이 탐라총관부를 세워 제주도를 지배하면서 약탈을 자행했다. 그 이후로 '몽골놈의 새끼'는 제주도에서 가장 심한 욕이 되었다.

리하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또래 관계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균형지향	주류문화 지향	하위문화 우세	일탈 위험
또래 관계	왕따경험 없음	왕따경험 없음	왕따경험 있음	왕따경험 있음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 또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은 달랐다. ‘하위문화 우세’나 ‘일탈 위험’의 아이들은 ‘균형 지향’이나 ‘주류문화 우세’의 아이들과 달리 왕따 경험이 있었다.

나. 사회조직

1) 가정생활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아버지 문화와 어머니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중 문화 속에서 생활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정생활에서 주류 문화로 대표되는 아버지 문화와 비주류 문화인 어머니 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보다 적었다. 하지만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아버지 및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양상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주류문화 지향’의 정체성을 보인 주영이의 경우, 아버지 및 친척들과의 교류가 아주 활발하고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아버지 형제가 많아요. 큰 아빠는 부산에 사시고, 작은 아빠는 전주에 살고 계세요. 고모는 둘 있는데 둘째 고모가 더 좋아요. 거기 가면 우리랑 놀 사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용돈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아빠는 무서워요. 공부하라고 매일 말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무섭게 화내세요.“

(2012.02.26 강주영)

다음으로 ‘균형 지향’의 정체성을 보인 희정의의 경우 ‘주류문화 지향’의 정체성을 보인 주영이 보다 아버지 및 아버지 친척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아버지로 대표되는 주류문화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어머니 문화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해 아버지 문화와 어머니 문화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시에 고모가 살고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일 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사촌들이 나이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거기 가도 말도 거의 하지 않아요. 이름도 잘 모르고, 길거리에서 봐도 잘 모르겠어요.“

(2012.02.26 이희정)

‘하위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연재의 경우, 아버지와 다정다감하게 지내며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도 적지 않으나 아버지가 직업상의 이유로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집에 오기에 본인의 정체성 형성에서 아버지문화로 대표되는 주류문화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또래의 사촌언니들과의 교류에서 청소년 하위문화에 쉽게 져어 들었다.

“작은 아빠는 일본에 계시고요. 고모는 저희랑 가까운 한림에 살고 계세요. 고모네는 사촌언니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언니들 자식이 나랑 또래예요. 같이 놀러도 가고, 자주 집으로 놀러가기도 해요. 저한테도 잘해 주세요.“

(2012.02.26 홍연재)

끝으로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보인 예빈이의 경우 아버지가 안계시고, 친척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기는 하지만 친척들의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기존의 가치관을 벗어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큰 아빠도 계시고 작은 아빠도 계세요. 고모들은 전부 육지에 살고 계시고요. 저한테 잘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큰 아빠가 저보고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는 말을 해서 전에 많이 운 적이 있어요. 엄마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그래요. 고모들도 선물도 사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2012.02.26 박예빈)

2)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정책

오늘 날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이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으로 일반인과 구별되는 경험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한다.

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사업,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지원, 그리고 많은 다문화행사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본인의 선택의지와는 무관하게 ‘다문화가정’의 아동으로 분류되어 학교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낙인이 뒤따르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 때에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되지 않는지만 주로 사춘기를 겪게 되는 시기 즉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에 많은 혼돈을 낳고 있다. ‘한국인’이기보다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불리면서 일반학생들로부터 이방인으로 분리되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하고, 진정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자신감을 잃고 있다. 그만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벽을 쌓고 자신을 누군가에게 노출하기를 두려워하며 숨기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신과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하고만 교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친구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다문화가정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다른 반 친구하고만 어울리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교 선생님이 너를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은데 대해, 예빈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

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나만 잘해주는 것도 차별이다. 똑같이 잘 해주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2011.09.25 박예빈)

"희정이가 다문화가정이라는데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조심스럽다. 학교에서는 멘토링이나 여러 가지 다문화관련 조사를 하여 희정이에게 본의 아니게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거부반응이 있다. 예민한 사항이다."

(2011.11.01 이희정 담임)

"반에 거친 아동이 많이 있어서 눈에 드러나는 왕따 정도는 아니지만 상호교류에 어려움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준서 자체도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스스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적은 듯하다. 자신의 부모님께도 학교생활에 대하여 약간 과장되게 이야기 하여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도 부모님이 신경을 쓰시게 하는 듯하다. 스스로 다문화 가정의 아동임을 밝히고, 다문화행사에 다녀온 것에 대하여 이야기도 자주 하곤 한다."

(2012.03.06 강준서 담임 전화상담)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이 학교생활의 성공적 적응과 관계없이 정체성의 혼돈을 보이는 데에는 이 같은 ‘다문화가정’이라는 낙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3) 이주민공동체 참여

연구 참여자들의 어머니는 같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 매주 성당에서 만나 필리핀 이주민 모임에 참석한다. 제주지역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는 필리핀 출신 이주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삼삼오오 모이는 일종의 친목모임의 형식도 있고, 필컴 제주(FilCom-Jeju)처럼 정관과 조직을 갖춘 공식적 모임도 있다. 또한 ‘제주외국인센터’의 필리핀 이주민 모임처럼 필리핀계 이주민과 여타 국가 출신의 이주민 그리고 한국인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필리핀 이주민과 외부인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주민 공동체란 '제주외국인쉼터'를 가리킨다. 이 모임에서 이주민 자녀들은 필리핀 언어와 문화를 접한다. 또한 다른 필리핀 이주민과 그 자녀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고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물론 이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수년간 이 모임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필리핀 이주민 자녀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서 필리핀 문화의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균형 지향과 하위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주류문화 우세나 일탈위험의 정체성을 보이는 이주민 자녀보다 제주외국인쉼터의 모임에 보다 자주 참여한다. 다시 말해 이들의 필리핀 문화의 접촉기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제주외국인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영어미사, 무료진료, 친교의 시간, 아이들 돌봄 교실 등의 일상적 사업과 봄, 여름, 가을 제주지역 야외 나들이 그리고 부활과 성탄 축제 등의 행사가 있다. 이 중에서 영어미사, 특히 필리핀어로 바치는 주님의 기도, 친교 시간에 맛보는 필리핀 음식과 과자 그리고 뜻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운 필리핀어와 그 대화의 분위기 등은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에게 필리핀 문화, 이주문화에 대한 간접 체험의 기회를 풍성하게 제공하였다.

(2011.01.08 연구자)

4) 매스미디어

오늘 날 매스미디어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자신과 닮은 이들을 쉽게 접하곤 한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태도는 각양각색이었다. 자신들의 모습이 화제 거리가 되어 TV에 나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위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연재의 경우 결혼이주민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스미디어의 모습에 반감을 보여주었다.

“TV에 우리 같은 다문화가정의 모습이 나오면 그냥 짜증이 나요, 왜 TV에 그런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싫어요.” (2012.02.06 홍연재)

반면에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지닌 예빈이는 예상과 달리 매스미디어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기도 하였다. 학교나 필리핀 공동체,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소외감을 느꼈는데 그나마 매스미디어를 통해 어려운 처지의 다문화가정 자녀와 동일시하면서 스스로 삶의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가끔 TV 인간극장 같은데 우리 같은 다문화가정의 모습이 나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 집처럼 힘든 사람들 모습도 나와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2012.03.06 박예빈)

매스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결혼이주민 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삶은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의 문화를 어느 정도 습득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느냐로 비춰주고 있었다. 이 속에서 결혼이주민 자녀들은 주류 문화에 대해 반감을 갖거나 동화하려는 자세를 갖게 된다.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의 가정생활,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정책, 이주민 공동체 참여, 매스미디어 등 사회조직과 정체성 유형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IV-4>와 같다.

<표 IV-4> 사회조직이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균형지향	주류문화 지향	하위문화 우세	일탈 위험
가정생활(아버지 및 친척과의 교류)	적음	활발	적음	적음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정책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이주민 공동체 참여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매스미디어(이주민 소개에 대한 태도)	-	-	부정적	우호적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 모두는 정부의 일방적 이주민 정책으로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불리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부모가 이주민이고 인종이나 민족, 문화가 다를 것을 인정하나, 자신 역시 한국 사회에서 일반 학생들과 달리 ‘다문화가정 자녀’로 분류되는 데 대해 당혹해 하고 불안해했다. 특히 이주민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나 저학년 때와 비교해 고학년이 되면서 이 같은 당혹감과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주민 자녀들은 아버지 및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 필리핀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이주민 자녀 또래들 간 동료의식을 느끼고 나아가 한국인 봉사자 언니, 누나들과 상호 교류하며 학교에서의 차별과 심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다. ‘균형 지향’과 ‘하위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은 ‘주류문화 지향’과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보다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 자주 참여하였다. 반면에 ‘주류문화 지향’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가 많았고,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통제력도 강했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태도는 다양각색으로 무관심한 경우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 그리고 심리적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다. 사회문화

1) ‘한국인’ 외모에 대한 인식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곧, 자신의 인종적, 민족적 특성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 골격 등을 놓고 한국인과 다르다는 눈짓을 받고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돈을 맞이한다. 이 때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한 경우 정체성의 혼돈은 부분적으로 덜할 수 있다.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의 자녀들인 경우 피부색이 정체성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피부색이 한국인과 유사한 이주민 자녀는 주류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이는 반면 한국인과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 자녀들은 균형지향이나 하위문화 우세 혹은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보인다.

“외모 상으로 눈에 띄어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임을 알 수 있었다.”

(2011.12.01 홍연재 담임)

“다문화가정의 자녀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문화가정 관련조사가 있어서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외모 상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2011.12.01 강주영 담임)

“처음 외모 상에서 다른 아이와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2011.12.01 박예빈 담임)

2)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태도

경제적인 능력은 떳떳한 가족구성원으로 그리고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필수조건이다.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가 어떤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지는 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주민 어머니가 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때 그 자녀의 자존감을 커진다.

연구 참여자들의 가정의 경제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어머니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거나 직업을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 이들은 현재 무직이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이고,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거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통역사 일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주민 자녀의 어머니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으로 간주할 만한 직업은 못된다. 그만큼 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서 자신이 주류 사회의 어엿한 한 구성원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남겨놓고 있다.

3) 출신국가에 대한 평가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그 외국인의 출신 국가의 경제적인 역량과 서구화의 정도, 피부색 등에 따라 다르다. 연구 참여자들의 어머니 출신 국가는 한국 사람들이 낮게 평가하는 동남아 지역의 필리핀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 형성에서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 대한 한국인들의 낮은 평가가 정체성 형

성에서 어머니 국가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 ‘한국인’ 외모에 대한 인식,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태도, 출신국가에 대한 평가 등의 사회문화와 정체성 유형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사회문화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균형지향	주류문화 지향	하위문화 우세	일탈 위험
‘한국인’ 외모에 대한 인식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태도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출신국가에 대한 평가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은 자신의 피부색이 ‘한국인’의 외모와 차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한국인’으로 선택되어 한국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거나 ‘다문화 아이’로서 한국인 아이들과 어울리는 데서 배제되고 있었다. 또한 이주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아이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편과 사별해 정부보조금을 받고 딸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 있는가 하면, 남편의 농사일을 돕거나 이주민센터에서 통역사로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나 필리핀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 모두를 무시하는 태도가 존재하기에,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은 이로 인해 상처받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 요인을 사회 문화, 사회조직,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균형 지향형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은 그 부모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었고, 자녀에 대한 관심 또한 많으나, 모국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소극적이었다. 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긍정적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또래 관계에서 왕따 경험이 없었다. 그리고 필리핀 공동체에 자주 참여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류문화 지향형은 균형 지향형처럼 이주민 부모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었고, 자녀에 대한 관심 또한 많으나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소극적이었다. 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긍정적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또래 관계에서 왕따 경험이 없었다. 균형 지향형과 달리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가 많고, '한국인'의 외모와 차이가 적어 피부색으로 인한 갈등은 보이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어머니가 통역사일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하위문화 우세형은 균형 지향형, 주류문화 우세형과 달리 이주민 부모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나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다소 적극적이었다. 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래 관계에서 왕따 경험이 있었다. 필리핀 공동체에 자주 참여하고 있으며, 매스미디어에서 이주민에 대한 소개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탈 위험형은 하위문화 우세형과 마찬가지로 이주민 부모가 심리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나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는 다소 적극적이었다. 또한 담임교사로부터 기대와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래 관계에서 왕따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하위문화 우세형과 달리 필리핀 공동체에 그다지 자주 참여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매스미디어에서 이주민의 소개를 보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심리적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 모두는 정부의 일방적 이주민 정책으로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불리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정체성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특히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 간에 정체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그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는 개인의 정체성의 발달방법을 모색하거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귀속적 변인에 의한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연구, 또한 사회적 변인·사회맥락적 상황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문화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같은 출신국가 이주민 자녀들 간 정체성의 차이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다문화가정’ 혹은 ‘필리핀계 결혼이주민’이라는 호칭으로 그에 포함된 사람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간주하는 정책적, 학문적 관행을 넘어서고자 했다. 곧 이주민자녀의 정체성이 인종이나 민족 등 집단적 변인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주의국인쉼터 놀이교실에 참여하는 6명의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면담을 실시했고, 이주민 부모 및 담임 교사와의 면담도 병행하였다. 참여 관찰 및 면담 결과를 일차적으로 정리하면서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을 한국사회와 필리핀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의 차이에 따라 ‘균형 지향형,’ ‘주류문화 지향형,’ ‘하위문화 우세형,’ ‘일탈 위험형’의 네 가지로 유형화 했다.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의 차이가 무엇보다 소속감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 네 가지 유형을 근거로 이차적으로 6명의 아동의 관찰 및 면담 결과를 분석

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균형 지향형은 필리핀과 한국 두 문화의 경계선 상에서 정체성의 갈등을 보이거나, 어느 한 쪽에 속하지 않고 양쪽 문화를 오가며 두 문화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체성 유형이다. 주류문화 지향형은 필리핀과 한국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데 갈등을 경험하긴 마찬가지나, 보다 더 한국인이 되려는 지향이 강하다. 하위문화 우세형은 한국 문화와 필리핀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갈등을 느끼며, 필리핀 문화나 한국의 대중문화 등 소위 하위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일탈 위험형은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갈등이 보다 심화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의 벽을 넘어 일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네 가지 정체성 유형은 현재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양상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긴 했으나, 이들이 추후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등 사회적 삶의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나 필리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달라지면 정체성 유형도 그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일탈 위험형’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가 필리핀 공동체에 자주 참여하면 ‘하위문화 우세형’의 정체성으로 변하고, 이후 한국사회 집단에 대한 소속감 역시 보다 강화된다면 ‘균형 지향형’의 정체성으로 진화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다. 요컨대 네 가지 유형의 정체성은 현재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발견적 가치를 지닐 뿐이지, 향후 이들의 정체성의 발달 과정을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본 연구는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의 차이는 이들이 처한 사회문화, 사회조직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다양한 정체성은 거꾸로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나아가 사회조직 및 사회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전제로 하였다. 연구결과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의 차이는 부모, 교사 및 또래 등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가정생활·학교의 다문화 정책·이주민 공동체 참여 및 매스미디어 등의 사회조직, 나아가 우리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집합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이주민 자녀에 대한 참여관찰 및 면담 결과를 근거로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었다.

첫째,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은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크게 달랐다. ‘하위문화 우세형’이나 ‘일탈 위험형’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의 경우, ‘균형 지향형’이나 ‘주류문화 지향형’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에 비해 그 부모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했고, 자녀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반면에 이주민 부모의 언어나 문화 학습에 대해서는 다소 적극성을 보였다. 담임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균형 지향형’과 ‘주류문화 지향형’의 아이들은 교사로부터 비교적 긍정적 기대를 받고 교사의 심리적 지지를 경험한 반면에 ‘하위문화 우세형’이나 ‘일탈 위험형’의 아이들은 교사의 기대 역시 부정적이었다. 또래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랬다. ‘하위문화 우세’나 ‘일탈 위험’의 아이들은 ‘균형 지향’이나 ‘주류문화 우세’의 아이들과 달리 왕따 경험이 있었다.

둘째,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 모두는 정부의 일방적 이주민 정책으로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불리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부모가 이주민이고 인종이나 민족,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나, 자신 역시 한국 사회에서 일반 학생들과 달리 ‘다문화가정 자녀’로 분류되는 데 대해 당혹해하고 불안해했다. 특히 이주민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나 저학년 때와 비교해 고학년이 되면서 이 같은 당혹감과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주민 자녀들은 아버지 및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 필리핀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이주민 자녀 또래들 간 동료의식을 느끼고 나아가 한국인 봉사자 언니, 누나들과 상호 교류하며 학교에서의 차별과 심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다. ‘균형 지향’과 ‘하위문화 우세’의 정체성을 보인 이주민 자녀들은 ‘주류문화 지향’과 ‘일탈 위험’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보다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 자주 참여하였다. 반면에 ‘주류문화 지향’의 정체성을 보인 자녀들은 아버지 친척들과의 교류가 많았고,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통제력도 강했다.

셋째, 제주지역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차별적 사회문화로 인해 이주민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거꾸로 한국사회의 차별 사회문화에 불만을 품고 하위문화 속에서 문화적 저항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같은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지만 차별의 경험에서 차이를 보였고, 그만큼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다른 경로를 밟았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어떤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는 짙은 갈색

의 피부로 ‘한국인’의 외모와 뚜렷이 구분되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그렇지 않았다. 순혈주의와 단일 민족주의의 편견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피부색의 정도에 따라 ‘한국인’으로 선택되어 한국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거나 ‘다문화 아이’로서 한국인 아이들과 어울리는 데서 배제되어야 했다. 이주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아이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편과 사별해 정부보조금을 받고 딸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있는가 하면, 남편의 농사일을 돕거나 이주민센터에서 통역사로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필리핀을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못사는 나라’로 간주하고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나 필리핀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 모두를 무시하는 태도가 존재하기에, 필리핀계 이주민 자녀들이 ‘이등시민’의 정체성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이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사회조직 나아가 사회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 두어야 했다.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연구모형 중 일부분 밖에 적용하지 못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사회조직 및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관련 하위 변수 중에는 거의 모든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에 동일하게 영향력을 미친 반면에 어떤 변수들은 이주민 자녀들에 따라 그 영향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곧 이주민의 출신국가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 학교의 일방적인 ‘다문화가정’ 정책 등은 제주지역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들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한국인의 외모에 대한 평가, 이주민의 가정생활, 이주민 공동체 참여, 매스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등은 이주민 자녀들의 상황에 따라 정체성 형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본 논문의 분석의 틀에서 설정한 정체성 형성 관련 사회적 요인의 작동 원리가 동일하지 않았다. 달리 말해 학교의 다문화 정책이나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출신국가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는 초등학교 수준의 이주민 자녀들이 대응하기에 힘들만큼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주민 자녀들이 나이를 먹고 주체적 역량이 강화된다면 학교의 다문화 정책이나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결론

국제이주, 특히 아시아지역의 국제이주의 증가 속에서 한국에서도 결혼이주민 가정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다인종, 다문화사회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결과,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은 '다문화가정' '영원한 외국인' 등으로 타자화되고 있다. 결혼이주민 자녀들 역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는 게 순탄하지만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결혼이주민 가정의 상황에 따라 그 자녀들의 정체성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같은 필리핀계 결혼이주민 자녀이면서도 어떤 자녀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이 덜한 반면에 어떤 이주민 자녀들은 정체성 정립에 상당한 몹살을 앓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의 혼돈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찾아냄으로써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정립에 일조하는 기초자료 제공에 그 의의를 두고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문제는 단지 사춘기라는 인간발달의 어느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국제결혼이주와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교육적 과제라는 점이다. 부모, 교사 및 또래 등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가정생활·학교정책·이주민 공동체 및 매스미디어 등의 사회조직, 그리고 사회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결혼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체성 형성에는 이주민 부모와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적 사회문화, 국가의 정책 등 거시적 요인과 함께 이주민 자녀와 부모, 교사 및 또래 등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주민 자녀의 정체성 문제는 단지 '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주민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 부모, 또래 학생, 학교 교사 및 국가 정책상의 문제라는 점이다.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다문화적 감수성을 지니지 않는다면, 이주민 자녀들 역시 정체성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셋째,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 교사의 다문화적 감수성과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

다. 교사는 단지 인종이나 민족, 문화 등 국제이주에 의해 나타난 정체성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 성, 연령, 계층, 지역 등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 차원의 정체성 문제를 문화의 역동성을 전제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를 소수자로 간주하고 학교에서도 적극적 배려 차원(affirmative action)의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다문화가정'으로 낙인하여 주류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주민의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접근하고 이주민 개인의 선택권을 배제함으로써 '정체성의 폭력' 문제를 초래하였다. 소수자로서 이주민을 위한 교육에서도 사회 적응을 강조할 뿐 문화적 주체로서 정체성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결국 다문화교육을 한다면서 반(反)다문화적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에서 결혼이주민 가정의 자율성, 나아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기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에서도 미국식의 다문화주의의 틀을 넘어 프랑스의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이념(Abdallah-Preteuille, 1999; 2012)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고지영(2003). 중국 조선족 정체성 변화 분석.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2006-2010).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11).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미발간 자료.
권순희(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상담 지도 사례. **국어교육학연구**, 29, 127-174.
권오희(2006). 국내 결혼이주자 가정 자녀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권유미(2011). 다문화 학습 활동을 통한 문화 정체성의 발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김민정(2008).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의 성장: '여러 종류의' 한국인이 가족으로 살아가기. **혼혈에서 다문화로**. 전경수 외, 87-130.
김민호·오성배(2011).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9, 7-47.
김석원(2008). 「제 3문화 아이들(TCK)」의 정체성 분석과 교육적 대안 탐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주·김범준(2011). 새로운 정체성 'Korean-American'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외교사논총**, 33(1), 197-233.
김성희(200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김재우(2006).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교육지원방안. **오늘의 청소년**, 22(6), 10-15.
남윤주(2009).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아동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관한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박나현(2011).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실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정체성 형성.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박미경·엄정애(2007).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 28(2), 115-136.

- 박아청(1995). **아이데티티의 탐색 2**.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_____(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3.
- _____(2010). **에릭슨의 인간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부향숙·김진한(2010). 미국 인종 및 민족 정체성 발달 이론으로부터 조망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애 발달 이해. **한국성인교육학회**, 13(4). 59-89.
- 서종남(2009). 다문화 교육 교육과정 구성과 다문화가정 학생 적응력 향상. 경기도 김포교육청 토론회 자료집
- _____(2010). 결혼이주자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연구. **시민교육연구**, 42(1). 103-126.
-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과천: 보건복지부.
- 송선진(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심우엽(2009). 다문화 학생의 민족 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4). 27-47.
- 양정혜(2007). 소수 민족 이주 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 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7, 47-78.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_____(2011). 다문화 교육 현실과 정책적 지원 방안. 2012 제주교육포럼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 이승훈(2006). 일본에서 '재일한국인'으로 살아가기.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98. 77-101.
- 이재분(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지명(2000). 地球化 趨勢 속의 民族 正體性 教育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원대학교.
- 이차선(2000). 가정환경, 학교환경,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백록논총**, 2. 109-138.
- 이창호(2008).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연구. **한국청소년시설학회지**, 6(1). 3-15.
- 장은영·최영(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정체성 유형과 생활만족도. **사회과학연구**, 26(3). 1-25.
- 장미정(2002). 민족 정체성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시행 2011.01.24) 법률 제10374호, 2010.07.23. 일 부개정 <http://law.wizice.com/80137337117>에서 2012년 2월15일 인출
- 전경수(2008). 차별의 사회화와 시선의 정치과정론: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예비적 연구. **혼혈에서 다문화로**. 전경수 외, 35-85.
- 정혜승(2010). 수업에 드러난 교사의 문식성 인식과 학생의 정체성 협상 양상. **한국초등국어교육**, 43. 6-3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 다우렁 여는 세상. 다문화교육 사례집.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2).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 제주다문화아동보육현황.
<http://jeju.childcare.go.kr>에서 2012년 2월15일 인출
- 조민경·김렬(2011).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2). 263-291.
- 조영달 외(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통계청(2011). 한국의 결혼이민 현황. 혼인통계. 10.
- 행정안전부(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http://www.mopas.go.kr>에서 2012년1월26일 인출
- 황라경(2009). 텔레비전 휴먼다큐멘터리의 '다문화'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Abdallah-Pretceille, M.(1999). *L'éducation interculturelle*. Presses Universit aries de France. 장한업(웁김)(2010).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 다문화사

- 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안』. 서울: 한울아카데미.
- Abdallah-Pretceille, M.(2012). *Intercultural education as educational practice and ethical reflection* 『Diversity, Equity & Excellence in Education』. 2012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별도배부 자료.
- Anthony, D.S,(1991). National Identity, University of Nevada Press. 8-15
- Bigler, R.S, & Hughes, J.M.(2009). The nature and origins of children's racial attitudes. In J. A. Banks(Ed), *The Routledge International Compan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NY: Routledge. 186-209.
- Choong Rai Nho. (2000).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 American & immigrated adolescents*. Columbia University.
- Dong, Q., Gundlach, D.& Philips, J. (2006). The impact of bicultural identity on immigrant socialization through television viewing in the United State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15*, 63-74.
- Davis, S. C., Leman, P. J., & Barrett, M (2007). Children's implicit and explicit ethnic group attitudes, ethnics group identification, and self-esteem.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5). 514-525.
- Erikson, E. H(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_____(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 Goffman, E.(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윤선길 · 정기현(역)(2009). 스티그마 :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 Parrillo, V.N.(2008). *Understanding race and ethnic relations(3rd ed.)*.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역)(2010). 인종과 민족관계의 이해. 서울: 박영사
- Suárez-Orozco, C. (2000). Identities under siege: Immigration stress and social mirroring among the children of immigrants. In *Culture under siege: Social violence and trauma*. A Robbon and M. Suárez-Orozco(ed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árez-Orozco, C. (2004). Formulating identity in a globalized world. In *Globalization: culture and education in the new millennium*. Su á

rez-Orozco, M.M. & Qin-Hilliard, D.B.(ed.)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73-202.

A B S T R A C T *

An Analysis on Identities of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Jeju Island

Lee An-Hee

Major in Elementa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what diverse features the identity of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Jeju Island take on, and to investigate by what social factor the formation of the identity is affected,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which is necessary for them to build their identity and to make political support in relation to it.

Concret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Firstly, what differences the identity of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Jeju Island displays between them?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August, 2012.

Secondly, what social factors are which have affected the formation of diverse identities of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Jeju Island?

Theoretical foundations were established by examining precedent studies of the identity of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and 6 elementary students in Jeju foreigner shelter were observed and interviewed so as to investigate identities of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Jeju region. We assumed that although they were the same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their identities would vary in diverse conditions of life and based on this, we classified the identities of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Jeju region depending on levels of their sense of belonging to two societies of Philippine and Korea. In addition, we tried to find factors of building their identities from their interaction with social culture, social structure, and significant others. Results studied based on this framework for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identities of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Jeju region were characteristic of four types. Those in a balance-oriented type tried to keep themselves balanced between two cultures among Philippine and Korean cultures, and those in a mainstream culture-oriented type had stronger will to become Koreans between Philippine and Korean cultures. In addition, subculture-oriented type tried to find their identity in so call subculture including Philippine culture or Korean pop culture etc., and a deviant-dangerous type tried to win recognition through deviation beyond the all of social norms.

Secondly, social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the diverse identities of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Jeju region are as follows:

Migrants' children who had their identity of the balance-oriented type had their parents who were stabilized psychologically and socially, and they were very interested in their children as well, but they had passive attitudes towards their children's learning their mother tongue or native culture. Besides, their children were receiving positive expectations and support from

their homeroom teachers and had no experience of being bullied in their peer relationships. And they often participated in the Philippine community, but they were in financially embarrassed situations.

For the mainstream culture-oriented type, their migrant parents were stabilized psychologically and socially like the balance-oriented type, and their parents were very interested in their children but they had passive attitudes towards learning their parents' language or culture. In addition, they were receiving positive expectations and psychological support from their homeroom teachers and had no experience of being bullied in their peer relationships. Unlike the balance-oriented type, they had much interaction with their fathers' relatives, and there's no conflict arising from their skin color since they had less difference in physical appearance over 'Koreans'. Although they were financially disadvantaged, their family had the socially acknowledged profession since their mothers were working as interpreters.

For the subculture-oriented type, their migrant parents were instable psychologically and socially unlike the balance-oriented type and the mainstream culture-oriented type and were indifferent to their children. But their children were somewhat active about learning their migrant parents' language or culture. In addition, they were not receiving expectations and psychological support from their homeroom teachers, and they had experience of being bullies in their peer relationships. They were often participating in the Philippine community, and were thinking negatively about the way of introducing immigrants in mass media.

For the deviant and dangerous type, their immigrant parents were instable psychologically and socially like the subculture-oriented type, and were indifferent to their children but they were somewhat active about learning their parents' language or culture. Additionally, they were not receiving expectations and psychological support from their homeroom teachers, and had experience of being bullied from their peer relationships. However, unlike the

subculture-oriented type, they did not very often participate in the Philippine community, and they were in financially difficult situations and they were comforted psychologically watching introduction of immigrants in mass media and comparing them with their lives.

And all the children of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Jeju region were responding negatively to the fact that they were called as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school due to the government unilateral policy for migrants.

As mentioned above, for the formation of the identities of the children of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in Jeju region, complex factors were working including macroscopic factors such as discriminatory social culture of migrant parents' nationality, physical appearance, social/economic status etc., social structural factors such as social exchange between their Korean parents and relative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of school, participation in the migrant community and mass media and so forth, and microscopic factors including interaction with significant others such as migrant children's parents, teachers and peers etc.

Key words: Filipino marriage migrants' children, Stigma, Identity